

번역사회학적 측면에서 문학 번역가 인식 비교·분석 — 국내/영미권 번역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마 승 혜* · 김 순 영**
(동국대, 서울)

1. 서론

번역은 문화간 교류(interchange)를 의미하고, 번역가는 이(異) 문화 중재자(cross-cultural mediator)(Bassnett 2012)라고 한다. 이는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정확한(또는 적확한) 번역 결과물 생산을 위해서는 문화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 번역학 연구는 크게 번역 결과물과 번역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다가 2000년대 초 번역가 연구(Translator Studies)가 등장하면서 번역을 생산하는 주체인 번역가를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체스터만(Chesterman 2009)은 번역가 중심 연구를 구체화한 번역가 사회학(sociology of

* 제1저자

** 교신저자

translators)에 대해 설명하는데, 번역가 사회학은 “번역가 지위, 임금, 근로조건, 노동조합, 공적 이미지, 직업의식, 역학관계 등을 연구하는 분야”(Chesterman 2009: 16-17)를 말한다.

번역가의 역할 및 가시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번역가와 번역 텍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다(Dam and Korning Zethsen 2008; Liu 2013: 26 재인용). 그러나 키랄리(Kiraly)는 번역가 역량에 대해 설명하며 번역가에게는 단지 원천 텍스트를 바탕으로 등가의 목표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능력 이상이 필요하다(Kiraly 2003: 13)고 하고, 리우(Liu)는 번역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관계자와 소통하는 능력도 필요하므로 번역가 자체에 대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Liu 2013: 26)고 언급한다.

본고에서는 번역 과정이나 번역 결과물이 아닌 번역가에게 초점을 맞추어 번역사회학 측면에서 국내 및 영미권 번역가 인식을 살펴보고, 문화간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번역가의 정체성 인식, 번역오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경제적 상황, 작가/출판사와의 역학관계 등을 초점으로, 국내 및 영미권 번역가의 번역사회학적 인식을 비교·분석한 후, 이러한 인식이 번역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움직임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2. 선행 연구

2.1 번역가 인식 및 가시성에 관한 연구

번역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번역을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사회 활동(social activity)이라고 본다. “번역 주체와 번역 활동은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constructed)’ 한편,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발하고 ‘형성하기(constructing)’도 한다”(이영훈 2021: 52). 이러한 번역사회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번역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역자후기와 같은 주변텍스트(peritext)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전현주(2008), 김영신(2012), 김순미(2014)는 여러 번역가의 역자후기를 분석하여 번역가 가시성, 지위, 이미지 등에 대한 번역가 인

식을 조사하였고, 유한내(2013)는 문학번역가 한 명의 인터뷰 및 수상소감 등 후텍스트(epitext)¹⁾를 집중 분석하여 그 번역가의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역할관계를 보여준다. 김순미(2014)의 연구에서는 문학 번역가가 연구 대상이지만, 전현주(2008)와 김영신(2012)의 연구는 문학 번역가와 실용 번역가²⁾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진(2020)은 실용 번역가 한 명이 발간한 번역가 에세이, 즉 후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번역가의 아비투스, 번역 작업에 대한 태도,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유사한 차원에서 임진(2021)은 중국어 문학박사이자 출판번역가 한 명을 선정하여 번역가 에세이, 인터뷰, 역자후기를 분석하고, 번역사회학적 관점에서 번역가의 아비투스, 번역가 인식, 경제적 상황 등을 기술한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한 명의 번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유한내 2013; 임진 2020; 임진 2021) 문학 번역가와 실용 번역가 구분 없이(전현주 2008; 김영신 2012) 번역가에 대한 번역사회학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한 명의 번역가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하는 경우 번역 생태계에 관한 균형 잡힌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문학 번역가와 실용 번역가를 구분하지 않으면 분야별 번역가 인식 차이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³⁾ 번역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 번역가의 사회적 가시성에 대한 선행연구(Liu 2013: 54)에서도 193명의 번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정량 분석을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번역 분야를 세분화하지 않아서 특정 분야 번역가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분야별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다.

본고에서는 문학 번역가를 중심으로 번역사회학적 관점에서 번역가 인식을

-
- 1) 프랑스 문학이론가 주네트(Genette 1997)는 곁텍스트(paratext)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서문, 역주, 띠지 등 책의 일부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변텍스트(peritext)와 인터뷰, 기사, 광고 등 책과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후텍스트(epitext)로 세분화한다.
 - 2) 실용 번역가는 비문학 번역가를 말한다.
 - 3) 예를 들어, 번역 방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사례를 비교해보면, 문학 번역가의 경우 “원작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옮기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원작의 스타일도 함께 옮기려고 노력했다”(김순미 2014: 62)고 말하지만, 실용 번역가는 “내용은 어렵더라도 표현은 중3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해야 한다”(임진 2020: 183)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사한다. 국내 번역가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 범주를 좀 더 확장하여 국내 문학 번역가와 영미권 문학 번역가 인식을 조사하여 문화간 문학 번역가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2.2 인터뷰 연구

번역가의 가시성 및 인식을 살펴보는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역자 후기를 통해 번역가의 사회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역자 후기가 번역가가 원문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공간(김영신 2012: 15)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으로 본문 텍스트와 공존하는 공간이므로 아무래도 해당 원본 및 역서에 한정된 스토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번역가들은 역자 후기 작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⁴⁾ 역자 후기는 번역 및 번역가 관련한 사회·경제적 상황 및 인식을 솔직하게 토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공간이다.

리우(Liu 2013)의 연구에서도 193명의 중국 번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번역가 인식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정성적 인터뷰로 연구 결과를 보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안토노바(Antonova 2019)는 캐나다 번역학자이자 문학 번역가인 루이스 본 플로토우(Luise von Flotow)를 인터뷰하여 특정 작품 번역에 대한 소회부터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캐나다 번역 상황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플로토우의 인식을 보여준다. 토토시(Töttösy 2016)는 아르메니아 작가이자 번역가인 다이애나 햄바드주마이언(Diana Hambardzumyan)을 인터뷰하여 현재 작업 중인 서적, 아르메니아 출판 시장에 대한 견해, 아르메니아 독자들의 기대, 문학 비평가들과의 관계 등을 파악한다. 이처럼 본문 텍스트와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후텍스트의 일종인 인터뷰를 통해 단지 작업 중인 역서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번역 과정, 사회 속에서 번역가 상황 등에 대해 솔직하고 주관적인 번역가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4) 영한 문학 번역가 김현우는 “‘옮긴이의 말’을 쓰는 것이 어색합니다. 해당 책을 읽고 독자가 받게 될 감상을 미리 정해주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김윤주 2020)라고 언급하고, 일한 문학 번역가 양윤옥도 “‘옮긴이의 말’ 이것만 안 써도 번역하기가 수월할 것”(정의정 2017)이라고 하며, 역자 후기에는 작품 경향, 수상 내역, 일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장점을 적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역자 후기만을 통해 번역가의 사회적 상황 파악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 문학 번역가와 영미권 문학 번역가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번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이슈인 오역에 대한 인식,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 작가 및 출판사와의 역학관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번역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두 문화권 문학 번역가의 번역 사회학적 인식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번역가 인터뷰 분석

3.1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문학 번역가의 문화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우선 국내 문학 번역가와 영미권 문학 번역가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다. 모두 인바운드 문학 번역가이고, 최소 10년 이상 문학 번역을 해오거나 유수의 번역상을 받은 번역가들이다. 이들은 번역 능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언론사 및 출판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넷에 공개된 인터뷰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시대에 따라 번역가의 상황 및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최근 10년(2011년~2021년)간 인터뷰 자료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분석 대상 번역가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인 국내/영미권 문학 번역가와 번역 언어 쌍

국내 문학 번역가		영미권 문학 번역가	
번역가	번역 언어 쌍	번역가	번역 언어 쌍
1. 공경희	영어-한국어	1. Ana Jelnicar	슬로베니아어-영어
2. 김난주	일본어-한국어	2. Anthony Shugaar	이탈리아어/프랑스어-영어
3. 김남주	프랑스어-한국어	3. David Warriner	프랑스어-영어
4. 김석희	영어-한국어	4. Deborah Smith	한국어-영어
5. 김택규	중국어-한국어	5. Edith Grossman	스페인어-영어
6. 김현우	영어-한국어	6. Howard Goldblatt	중국어-영어
7. 박산호	영어-한국어	7. Jennifer Croft	폴란드어-영어
8. 박종대	독일어-한국어	8. John Pluecker	스페인어-영어
9. 박현주	영어-한국어	9. Jonathan Wright	아랍어-영어

10. 양윤옥	일본어-한국어	10. Katherine Gregor	이탈리아어-영어
11. 이세옥	프랑스어-한국어	11. Natasha Lehrer	프랑스어-영어
12. 이재형	프랑스어-한국어	12. Natasha Wimmer	스페인어-영어
13. 조영학	영어-한국어	13. Ruth Ahmedzai Kemp	독일어/러시아어-영어
14. 정영목	영어-한국어	14. Stefania Heim	이탈리아어-영어

3.2 문화 간 인식 차이 분석

국내 문학 번역가와 영미권 문학 번역가는 번역의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떠한지 상세히 살펴보겠다.

3.2.1 번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

번역가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국내 문학 번역가의 인식은 양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철저히 원본에 맞추어 번역하고, 번역본에 번역가로서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번역가의 ‘비가시성(invisibility)’⁵⁾을 옹호하는 측과 번역에는 번역가의 해석과 개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번역가 비가시성에 반대하는 측이 대조적으로 등장한다.

〈표 2〉 번역가의 비가시성 옹호하는 의견(국내)

번역가	번역가 인식
공경희	- 번역자는 최대한 안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결국 문학 작품은 작가와 독자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김석희	- 작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문체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번역은 반대다. 원저자가 갖고 있는 문체와 글의 맛을 존중해줘야 한다.
양윤옥	- 저는 '번역자는 구로고(黒子)'라고 자주 말하곤 해요. 구로고는 일본 가부키에서 '검은 옷으로 몸을 가리고 눈에 띄지 않게 배우 뒤에서 그 연기를 돕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작가의 창작물에 번역가의 생각이 끼어드는 것은 금기예요.
정영목	- 번역하는 사람은 소설을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배우처럼 (각본에 따르듯) 한다. 창작하면 번역해선 안된다.

5) 여기서 번역가 ‘비가시성’이란 번역가가 자신의 의도와 생각대로 원문에 개입하여 번역 시 원문 다시쓰기(혹은 창의적 재창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표 2>에서 국내 문학번역가들은 ‘번역자는 최대한 안 보이는 게 좋다’ 또는 ‘번역가의 생각이 끼어드는 것은 금기’라고 언급하며 번역물에 번역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표 3>의 국내 번역가들은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표 3> 번역가의 비가시성 반대하는 의견(국내)

번역가	번역가 인식
김남주	- 번역이라는 작업이 어쩔 수 없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취향을 드러내거든요. 번역자라는 깔대기를 통해 나온 텍스트를 보여주는 건데...
김택규	- 번역은 유편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어를 그대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일단 이해를 한 뒤 다시 표현하는 거다. (중략) 이해가 된 뒤 번역문으로 옮길 때는 한국어 구조로 변용돼서 표현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어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다. (중략) 온전한 한국어로 구현하려면 원문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김현우	- 본질적으로 뭔가 창작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PD’와 ‘번역’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국 일은 여럿이 함께하고 번역은 혼자 한다는 점, 또 방송국 일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하는 일이고 번역은 개인 자격으로 한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세욱	- 번역은 상위 텍스트를 이해하는 중간적 도구일 뿐 온전한 문학이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 작가가 한국어로 쓴 글만 한국 문학이 아니라, 어떤 번역자가 혼을 바쳐 번역한 외국 텍스트도 한국 문학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고 생각한다.

<표 3>에서는 번역가의 해석에 따라 번역에는 번역가의 취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번역도 본질적으로 창작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렇게 번역가가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번역 작품도 한국 문학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이처럼 번역가 비가시성에 대해 국내 문학번역가들은 양분된 인식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해외 문학번역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번역가는 또 다른 작가로서 다시 쓰기를 수행한다는 인식이 더 우세하다.

〈표 4〉 재창조자로서 번역가에 대한 인식(영미권)

번역가	번역가 인식
Ana Jelnikar	- For me, translating literature is the closest I have managed to come to being a creative writer. This is not to diminish the role of translators or see them as simply failed or wannabe writers (after all many translators are indeed themselves writers); it is rather to stress the specific nature of creativity involved in translation (나에게 문학번역은 창작 작가의 일과 가장 가까운 일이다. 이것은 번역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단순히 실패한 작가 지망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많은 번역가가 실제로 작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번역에 있어서 필요한 창의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Deborah Smith	- Translation is now widely seen as an act of 'creatively writing' in another language , employing various degrees of interpretation(번역은 다양한 층위의 해석을 통해 다른 언어로 하는 '창조적 쓰기' 행위 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Jennifer Croft	- I never translate word for word ... I could just kind of reimagine a sentence , thinking that I know how that fits into the rest of the book(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지 않는다 ... 나는 한 문장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장을 다시 상상한다).
John Pluecker	- I see translation as writing . As Kate Briggs has written in <i>This Little Art</i> , the work of a translator is to 'write a translation'. In this sense, the act of translation is necessarily an act of writing (나는 번역을 글쓰기로 본다 . Kate Briggs가 <i>This Little Art</i> 에서 썼듯이 번역가의 일은 '번역을 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 행위는 필연적으로 글쓰기 행위이다).
Natasha Lehrer	- Translation is not a word-for-word transposition. It's another iteration of the book. In a way, you are acting as another editor. It's obvious that two different translators have produced two very different translations from the same text . An engaged reader will realise that they are two different iterations of <i>The Odyssey</i> , each wonderful in their own way(번역은 단어 대 단어 전환이 아니다. 책의 또 다른 반복이다. 어떻게 보면 번역가는 또 다른 편집자 역할을 한다. 두 명의 번역가는 동일한 텍스트로 두 개의 매우 다른 번역을 생산한다 . 열성적인 독자는 <i>Odyssey</i> 의 두 가지 다른 번역이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Natasha Wimmer	- Translation is not improving, though it is a creative act; it's writing, or rewriting, the same text in a different language (번역은 창의적 행위 이지만 (원작을) 개선하지는 않는다. 번역은 같은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쓰기 또는 다시 쓰는 것이다).

<표 4>에서 언급하듯이 해외 문학 번역가들은 번역을 ‘창의적 행위’로 보고, ‘다시 쓰기’ 작업이라고도 생각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번역에는 번역가마다 독특한 특징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번역가를 재창조자로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문학 번역가 중 번역가는 번역 과정에 창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진 이들과는 상반되는 인식이다.

3.2.2 오역에 대한 인식

영화 및 문학 작품 오역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거리이다. 해외 콘텐츠를 즐기는 마니아가 늘고 대중 전반의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번역상 해석의 차이에 대해 ‘오역’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사회적 현상을 볼 수 있다(김도양 2018). 이렇듯 국내에서는 오역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국내 문학 번역가들은 오역에 굉장히 예민하고, 오역에 대한 논쟁은 번역가 인식 및 번역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국내 번역가들은 오역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발전, 그리고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 대해 아쉬워한다.

<표 5> 오역에 대한 인식(국내)

번역가	번역가 인식
김택규	<p>- 중국어 번역에는 오역 이슈가 많지 않다. 원전을 읽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한 번역 쪽은 사정이 다르다. 영어는 훨씬 친숙하고 능력자도 많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나 같으면 이렇게 번역할 텐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한영 번역가(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p> <p>- 오역이 화제가 되는 것 자체는 생산적인 현상이다. 대중들이 번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텍스트를 꼼꼼히 점검하는 계기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벤트처럼 일회성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쉽다. 우리나라에는 번역에 관한 담론이 너무 적다. 논의가 오갈 수 있는 공간도 없다.</p>
박산호	<p>- 단어의 다른 뜻을 몰라서 오역을 하는 경우도 잦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번역 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하면서 관련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번 책을 쓰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저도 보면서 오역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p>
양윤옥	<p>- 오역 논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등 뒤가 오싹하게 무서운 느낌입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p>

	<p>입했다, 라는 실감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번역보다 번역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더욱더 수고가 드는 일입니다. 올바른 지적은 최대한 받아들여 수정해나가야죠. 다만 오역 논란은 매번 어중간한 선에서 끝나는 듯해 아쉬워요. 그만큼 번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p> <p>- 번역에 대한 논의는 일회성으로 그칠 뿐이라서 좀 더 진지하고 활발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p>
이세욱	<p>-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영미권 번역본이 한 종밖에 없다. 100년이 되도록 애초의 번역서를 각기 다른 번역자들이 수정하고 다듬으며 출간하는 거다. 올해 옥스퍼드 쪽에서 나오는 100주년 기념판도 예전 그 판을 고쳐서 내는 거라고 들었다. 영어권에 프루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역자가 없어서 그랬을까? 설명 오류가 있더라도 그걸 계속 영문학의 일부로 안고 가는 거다. 우리는 그게 없다.</p>
이재형	<p>- 요즘은 인터넷으로 서평을 올릴 수 있잖아요, 오역 같은 거 찾아내서 글을 올려요. 철학 쪽 번역서에 서평이 제일 많아요. 철학서는 번역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책이 나오면 안 좋은 소리 들을 확률도 제일 높고요. 그래서 저는 철학책을 잘 안 해요. 서평을 보면 긍정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악플도 많이 달리거든요. 본인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근거 없는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분석을 해서 글을 올려요. 그게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p>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문학 번역가는 오역에 대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혹은 ‘항상 등 뒤가 오싹하게 무서운 느낌이다’라고 하며 오역 이슈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오역하면 안 된다’라고 되새기며 오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기도 한다. 요컨대 번역 과정에서는 오역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번역 후에는 오역 지적이 등장할까 봐 긴장하고, 또 근거 없는 지적에 대해 상처받기도 한다. 동시에 오역 논란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오역 및 번역에 대해 제도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장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한다.⁷⁾ 반면, 영미권에서는 오역에 대해 국내만큼 예민하지 않다. 영미권 문학 번역가 인터뷰에서는 오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 6) 영한 번역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영 번역가’는 ‘영한 번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7) 김택규 번역가는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우를 설명하는데, 중국에는 매주, 매달 출간되는 주요 번역서를 소개하고 비평하는 번역 전문 매체가 있다고 한다(김도양 2018).

볼 때 오역이 큰 사회적 이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오역에 예민하고 오역을 기피하기보다는 오역에 대해 좀 더 관대한 편이다.

〈표 6〉 오역에 대한 인식(영미권)

번역가	번역가 인식
Anthony Shugaar	- If you want to make a living as a translator, don't turn your nose up at anything. But do your best. You WILL make mistakes. After fifty years, I make LOTS of mistakes. But I try to get things right. And I keep learning from my mistakes, which are legion (번역가로 생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어떤 일도 거절하지 말고 해야 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 (번역과정)에 당신은 반드시 실수할 것이다. 50년이 지났어도 나는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번역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수많은 과거 실수로부터 나는 계속 배운다).
Deborah Smith	- All translators care deeply about accuracy; all translators slip up, because we're human (모든 번역가는 정확성에 대해 매우 신경 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번역가는 실수한다). - No translation is definitive—it's simply a way to 'Fail again. Fail better' (어떤 번역도 최종적으로 완전하지는 않다. 단지 '다시 실패하고, 나은 방식으로 실패하는 것'뿐 이다).
Howard Goldblatt	- I still find it baffling that a reviewer of a translation can credit or fault the author of a book for good/bad writing. It's probably wrong to do that with the translator as well, though they are her words, since unless the reviewer knows the original language, he cannot be sure where the merit/fault lies. On behalf of literary translators everywhere, let me declare that we have nothing to apologize for (번역 평론가가 좋은/나쁜 글에 대해 저자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여전히 당혹스럽다. 번역가에 대해서도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평론가가 원어를 알지 못하면 좋은 부분/잘못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문학 번역가를 대신해 사과할 것이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Natasha Lehrer	- When a translation is good, people get very excited. but when a translation is not very good people don't get upset about it (번역이 잘되면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지만, 번역이 잘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화내지 않는다).

해외 문학 번역가는 번역을 창조적 글쓰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원문을 해석하다 보면 번역마다 달라지고 실수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오역에 좀 더 관대한 편이다. 독자들도 오역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해외의

이러한 경향은 국내 문학 번역가들도 언급한다. 이세욱 번역가는 영어권에서는 번역요류가 있더라도 그걸 계속 영문학의 일부로 안고 간다고 지적한다. 즉, 영미권에서는 오역도 번역 문학의 일부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수정 및 보완해가는 경향이 있다.

다음, 번역가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국내와 영미권 번역가의 인식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3.2.3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

번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국내와 영미권 번역가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표 7〉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국내)

번역가	번역가 인식
김난주	-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 한 작품 끝내면 2개월간 일거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하고 싶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번역가의 위상이 그리 높지는 않다.
김남주	- 번역은 매절로 하는 경우와 인세로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매절의 경우는 원고료가 많지는 않지만 '하는 만큼' 받게 되고요. 인세의 경우는 책이 잘 나가면 참 좋지만 잘 나가지 않을 경우는 정말 힘든 경우도 있어요. (중략) 전업 번역자의 경우는 생활고를 각오해야 하는 점 에서 말이에요.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편집자나 큐레이터 일하거나 하는 겸업 번역자들이 많아요.
김석희	- 번역가로 일하면서 처자식은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실력이면 다른 일을 찾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김택규	- 번역만 하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림의 공백을 메꿔야 한다. 단적인 예로 주변에 가장 역할을 하는 남자 번역가는 나뉘에 없다. 90%는 여자 번역가고 이들은 남편이 돈을 벌거나 솔로다. 소수의 남자 번역가들도 부인이 맞벌이를 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박현주	- 번역자에게는 매절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일정 수입을 예상하는 게 가능해진다. 하지만 임금이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을 땐 많이 힘들어진 다. - 번역을 주업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꾸려갈 수 있을지 정말 생각해봐야 한다.
조영학	- 번역가 일을 시작할 때 200자 한 장 원고료가 4000원이었다.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4000원이다. 하늘이 찢어준 천직이 아니라면 이쪽

으로는 오줌 놀 생각도 하지 말라고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번역가 지망생은 여전히 많다. 은퇴 나이가 일반 직장에 비해 늦고, 번역가에 대한 사회 이미지가 좋은 건 장점이다.

<표 7> 인터뷰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국내 문학 번역가들은 대부분 번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번역가 위상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번역가 위상에 대한 인식은 영미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8>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영미권)

번역가	번역가 인식
Jennifer Croft	- I have not been able to support myself exclusively through translation. It tends not to pay that well(번역만으로는 먹고살기 어려웠다. 번역은 경제적 보상이 크지 않은 편이다).
Jonathan Wright	- You have to enjoy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e pleasure of solving a puzzle in a pleasing way, because the payment alone probably won't make it worthwhile (즐거운 방식으로 퍼즐을 푸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번역 과정을 즐겨야 한다. 번역료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Edith Grossman	- Then one day, I decided to quit teaching and to translate full time, and one of my editors at Knopf asked me, " You really can live on what you earn as a translator? " I said, "I have 2001 recipes for beans, so it will work out"(그러던 어느 날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풀타임 번역가가 되기로 결정하자 크노프의 편집자 중 한 명이 나에게 " 정말 번역일만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다).

<표 8>을 보면 영미권 번역가들 또한 번역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번역일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국내 문학 번역가와 영미권 문학 번역가가 서로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4 번역가와 작가 관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역할관계에 대한 번역가 인식을 살펴보면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먼저, 작가와 번역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국내 문학 번역가의 경우 이메일 등 소통 매체가 발전하며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과거에는 주로 작가와의 관계를 친밀하고 가깝게 인식하지 않았다.

〈표 9〉 번역가와 작가 관계에 대한 인식(국내)

번역가	번역가 인식
김난주	- <u>번역가에게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그 작품을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u>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작품에 녹아 있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u>번역을 하는 내게는 작품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u>
김남주	- <u>작가들을 개인적으로 보는 일은 많지 않아요. 이메일은 좀 해요.</u> 대개는 알쏭달쏭한것, 파악이 안 되는 것을 물어보려고요.
김석희	- 시오노 나나미(‘로마인 이야기’)를 두어 번 만난 걸 제외하면, <u>대개의 경우는 작가와 이메일도 나눈 적이 없다.</u> 번역은 원서가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도 없는 그림자 같은 것. 처음에는 씁쓸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양윤옥	- 번역자로서 작품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품고 있지만, <u>저는 작가를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번역은 작품과의 일대일 대결 이라고 할까요.</u>

〈표 9〉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보면, 국내 문학 번역가들은 번역 시 작가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메일 등을 통해 작가와 직접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번역가도 있지만⁸⁾ 작가와의 관계를 아주 가깝게 인식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외 문학 번역가들은 작가와 매우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심지어 번역 과정 중에 작가와 소통하는 것은 번역가의 의무라고까지 생각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8) 영어와 스페인어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번역가 권상미는 번역과정에 문제가 등장하면 작가와 이메일로 소통을 시도하여 해결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한다는 언급을 덧붙인다(채널예스 2016).

<표 10> 번역가와 작가 관계에 대한 인식(영미권)

번역가	번역가 인식
Anthony Shugaar	- When I do correspond with writers , I often discover just how many mistakes I make(작가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 나는 종종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된다).
David Warriner	- Depending on my relationship with the author and how well we know each other, I'll either relay questions that come up in a translation through the publisher, or email, text, or call the author directly as I go along (작가와의 관계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 번역 과정에 나오는 질문을 출판사를 통해 전달하거나 이메일, 문자 또는 작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결한다).
Deborah Smith	- Han herself has consistently taken the time to explain that translators consult both with editors and the author themselves , and that she has read my translation and loved it most for capturing the tone of her own writing(『채식주의자』 작가) 한은 번역가가 편집자와 작가 모두와 협의하였고 , 작가 자신도 내 번역을 읽었으며 내 번역이 자신의 작품 어조를 잘 드러내서 가장 좋았다고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Jennifer Croft	- I have always had a really good relationship with each writer I've translated(나는 내가 번역한 책의 작가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Katherine Gregor	- Just before I begin a translation, I now ask the publisher to put me in touch with the author. Most are happy to do so. Then I e-mail him or her to introduce myself. (...) All the writers I have worked with, so far, have been extremely obliging and generous with their time(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작가와 연결해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한다). 대부분 기꺼이 연결해준다. 그런 다음 나는 작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나를 소개한다. (...)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작업한 모든 작가들은 나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다).
Natasha Lehrer	- Really I think translators have an obligation to go back to the author and say that this isn't coming across well in translation, so what can we do to improve it?(번역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에게 연락하여 그 부분 번역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을지 물어봐야 하고 이는 번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표 10>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미권 번역가는 작가에게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번역 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국내와 비교해보면 번역가와 작가와의 거리가 영미권에서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번역가와 출판사 관계에 대한 국내 및 영미권 문학 번역가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겠다.

3.2.5 번역가와 출판사 관계에 대한 인식

국내 문학 번역가가 출판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체로 출판사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번역할 책은 번역가가 선정하기 보다는 출판사에서 선정하여 번역가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표 11〉 번역가와 출판사 관계에 대한 인식(국내)

번역가	번역가 인식
김난주	- 번역 자체는 나 혼자서 하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책이 나오는 과정은 나와 출판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작업 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김남주	- 민음사에서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번역을 부탁했을 때만 해도 그를 잘 몰랐어요. 들여다보니까 '아, 『남아 있는 나날의 원저자구나』 이렇게 된 거죠. 책을 읽어보니 굉장했어요. 식탁에서 읽다가, 소파, 침대, 책상으로 옮겨 가면서 반 이상을 읽고 편집자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번역하겠다고.
김석희	- 신춘문예와 서울대 출신의 소설가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랬는지, 출판사들도 나에게만은 괜찮은(바뀌 말하면 어려운) 책들만 번역을 청탁한 편이에요.
김택규	- 출판사가 번역가를 대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이다.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조건을 맞춰주려고 노력한다. 다만 출판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 대금 지급에 있어 순서가 뒤로 밀릴 때가 있다. 인쇄소, 디자이너 등 제작과 관련해 고정 거래처에 먼저 지급하고 번역가는 나중에 밀린다.
박현주	- 출판사 직원이 된 지인의 의뢰 로 단행본 번역 일을 시작하게 됐다. - 입금이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을 땐 많이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좋은 의도로 같이 만들어보자, 의기투합해서 책 작업을 시작했는데 입금이 제대로 안 되거나 기획이 아예 없어지거나 할 때면 번역자로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다.

〈표 11〉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는 출판사가 번역가를 ‘고르는’ 방식으로 번역 작업이 시작된다. 물론, 출판사가 번역 청탁을 해도 번역가가 거절

할 수는 있지만, ‘번역가는 대금 지급 순서에서 나중에 밀린다’ 또는 ‘번역 작업 후에도 갑자기 기획이 없어지면 번역가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을 보면, 출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학 번역가는 수동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영미권 문학 번역시장에서도 번역가의 위치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영미권에서는 번역가가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표 12〉 번역가와 출판사 관계에 대한 인식(영미권)

번역가	번역가 인식
Jennifer Croft	<p>- I am often the person who also sells those books, acting as a kind of agent for the authors I'm translating. (···) Like Olga for instance (···) I was doing all kinds of things during that time, like trying to publish excerpt and sending out pitches to everyone I could possibly track down(나는 종종 책 판매자 역할도 하면서 내가 번역하는 작가를 위한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 예를 들어 Olga 작품의 경우, 나는 책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 내가 아는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는 등 다양한 일을 했다).</p> <p>- I have definitely found that people are much more open and aware, thanks to the efforts of so many translators and so many wonderful editors, people like Chad Post, who started Open Letter specifically to publish only translations(많은 번역가와 훌륭한 편집자의 노력 덕분에 독자들의 인식이 훨씬 더 고양되었다. 특히 Chad Post와 같은 편집자는 Open Letter 출판사를 설립하여 문학 번역작품만 출판하기로 하였다).</p>
John Pluecker	<p>- There is still much work to be done to acknowledge the work done by translators. I still find numerous publishers who do not want to place the translator's name on the cover of the book(번역가 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아직도 책 표지에 번역가의 이름을 실는 것을 꺼리는 출판사들이 많이 있다.)</p>
Katherine Gregor	<p>- Mostly, publishers contact me and offer me a book. As a freelancer, my decision to choose to accept or decline a translation project is heavily influenced by financial considerations. Having said that, I tend to decline offers of books I deeply dislike (대부분 출판사에서 나에게 연락해 책을 제안한다. 프리랜서로서 번역 프로젝트를 수락하거나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보니, 나는 내가 몹시 싫어하는 책의 제안은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p>

해외 문학 번역가는 자신이 번역할 책을 선정하고 일부 번역하여 출판사에 가서 책 출판을 제안하기도 하고, 작가를 소개하기도 하며, 출판사에서 번역을 제안한 책을 보고 주제나 보수에 따라 거절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출판에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책 표지에 번역가의 이름을 싣는 것을 꺼리는 출판사들이 많다’는 언급에서 짐작해볼 수 있듯이 여전히 번역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출판사와의 역할관계 속에서 번역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번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⁹⁾

이처럼 번역가 사회적 입지 강화를 위한 인식이 제고되고 관련 움직임이 태동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번역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내 및 영미권 문학 번역가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3.2.6 사회적으로 번역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 문학 번역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적 지원이나 보험을 통한 경제적 지원, 번역 소통 매체를 통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협업이다.

〈표 13〉 번역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국내)

번역가	번역가 인식
공경희	- 짜을 이뤄서 하면 좋을 텐데 ,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편집자가 중요하다. 편집자들이 글을 읽다가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거나 무슨 이야기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그게 역자 교정이다. 누군가가 일일이 지켜봐주면 좋은데, 출판계 현실이 아직 그렇지 못하다.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는 스무 명이 한 팀이 돼서 썼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만한 시간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
김남주	- 돈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경력을 쌓아야 하니까 번역료를

9) 일례로, 영미권은 아니지만, 번역출판이 활발한 북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에서는 몇 년 전 문학 번역가들이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준법투쟁을 하였다. 번역을 마무리한 후 출판사에 완성된 번역본 파일은 보내지 않고 하드 카피만 보내서 출판사가 번역본을 스캔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시 타이핑하게끔 한 것이다. 출판사는 번역된 책을 출간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에 문학 번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다(Antonova 2019: 108-109).

	<p>따지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 경제관념을 염두에 뒀야 번역가의 지위도 높아져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비효과처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움직였으면 해요.</p>
김석희	<p>- (번역 지원을 하되)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질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작가들의 요구, 문단 내의 여러 입장을 두루 고려하고 배려하느라 너무 많은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뽑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책들을 번역해도 그 대부분이 외국에서는 서점에 나오기는커녕 기증받은 도서관 한구석에서 먼지나 풀풀 뒤집어쓰고 있다는 현실을 모른 체해서는 안되지요.</p>
김택규	<p>- 우리나라에도 번역 비평을 담아내는 매체가 생겼으면 한다. 거기서 활동하는 평론가가 있고 그들이 독자와 함께 소통하는 매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번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생산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p> <p>- '번역 보험'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번역을 완료했지만 책 출간이 취소됐을 때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거다.</p> <p>- 또 하나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번역 단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출판번역의 경우 위고지 한매에 4000원 정도를 받는데 나라에서 2000원을 지원하면 6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p> <p>- 번역업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수요에 발맞춰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p>
양윤옥	<p>- 번역에 대한 논의는 일회성으로 그칠 뿐이라서 좀 더 진지하고 활발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p>
정영목	<p>- 번역을 지원하는 것은 미술관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대우 학술총서가 좋은 예인데 당장 눈앞에 부를 불러주지는 못하더라도 공적 지원이 돼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업 자체가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 출판업계도 나무 한 그루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책을 내야 한다.</p>
이세욱	<p>- 나보다 10년 먼저 시작한 번역자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번역자 협동조합에 대해 구상하신 적이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움직여야 하는데, 번역의 성격상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 실현이 쉽지 않았다. 과연 우리가 하는 노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협동조합 형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p>

<표 13>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번역가 스스로가 경제관념을 갖고 번역단가를 낮추지 않아야 하고, 다음 공적 지원 및 번역 보험을 통해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단, 번역 지원을 할 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엄선해야 한다. 그리고 번역가, 번역 책, 번역오류 등에 대해 번역가, 비평가, 독자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잡지 등 번역 매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번역은 혼자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번역가 협동조합과 같은 기구를 통해 번역가들이 서로 만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협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영미권 문학 번역가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표 14〉 번역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영미권)

번역가	번역가 인식
Ruth Ahmedzai Kemp	<p>- There's tonnes of advice on the websites of the Translators' Association and the US equivalent, ALTA¹⁰⁾ (both worth joining if you intend to specialise in translating books)(번역가 협회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 ALTA 웹사이트에서 많은 조언이 있다(출판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협회에 가입할만한 가치가 있다)).</p> <p>- It's always great to see reviews of translated books, but disappointing when the review fails to mention the translator. (...) It's not just a matter of recognising a translator's creative input and copyright, it's a pragmatic issue: public credit is essential to running a business as a freelancer(번역 서적의 서평을 보는 것은 언제나 좋지만, 서평에서 번역가가 언급되지 않으면 실망스럽다. (...) 단지 번역가의 창의적 인풋과 저작권을 인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는 실질적인 문제이다. 프리랜서로 번역업을 유지하려면 (번역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 필수적이다).</p>
Jennifer Croft	<p>- I think it's hard-but maybe not impossible-to earn a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s a freelance literary translator. I rely on grants and fellowships and have been extremely lucky in the past year to also win some prize money(미국에서 프리랜서 문학 번역가로 생계를 꾸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 나는 지원금과 장학금으로 도움을 받고, 작년에는 상금도 받아서 매우 운이 좋았다).</p>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영미권 문학 번역가가 언급한 것은 번역가 협회, 번역에 대한 공식적 언급 및 인정, 지원

10) The American Literary Translators Association(미국문학번역가협회)

금, 상금, 장학금 등이 있다. 캐나다의 문학 번역가이자 연구자인 작가 플로투우는 사회적으로 번역가를 뒷받침해주는 데 필요한 것으로 ‘협회(association),’ 또는 ‘전문가 조합(professional union),’ 그리고 번역에 관심 있는 ‘독자(readers)’를 꼽는다(Antonova 2019: 109). 결국 번역을 읽고 소비하는 독자층이 있어야 협회나 조합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번역가를 위한 사회적 지원 사항에 대한 국내와 영미권 문학 번역가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차이점은, 국내에서는 번역가의 사회적 가시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지는 하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은 반면, 영미권에서는 번역가 지위 향상을 위한 캠페인이 발족되었다는 점이다.

4. 번역가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

#NameTheTranslator는 번역책을 출간할 때 번역가의 이름도 책 표지에 명기하고, 더 나아가 언론 매체, 비평, 또는 출판사에서 번역 서적에 대해 언급하고, 비평하며, 판매할 때 반드시 번역가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캠페인이다.¹¹⁾ 2021년 9월 30일 ‘유엔 세계 번역의 날(the United Nations’ Annual International Translation Day)’에 런던 작가 협회(The Society of Authors in London)에서 이 캠페인을 발족하였고, 출판사들에게 번역책 표지에 번역가 이름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 캠페인에서는 작가들에게 자신의 책이 번역될 때 번역가 이름이 표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계약서 및 출판사와의 소통’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라고 촉구하고, 900명 정도의 서명을 확보하였다(Anderson 2021). 이 캠페인에서 요구하는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Translators are the lifeblood of both the literary world and the book trade which sustains it. They should be properly recognized, celebrated and rewarded for this(번역가는 문학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책 판매에 있어

11) The Society of Authors 홈페이지
(<https://www.societyofauthors.org/Where-We-Stand/Credit/Name-the-Translator>)

서 생명선과 같다. 번역가는 제대로 인정받고, 축하받고, 보상받아야 한다”(Anderson 2021, 필자번역).

“From now on we will be asking, in our contracts and communications, that our publishers ensure, whenever our work is translated, that the name of the translator appears on the front cover(이제부터 우리는 출판사와의 계약서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 작품이 번역될 때마다 번역가 이름을 앞표지에 명기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Anderson 2021, 필자번역)

이처럼 영미권에서는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작가협회에서 번역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영미권 문학 번역가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번역가와 작가의 관계 부분을 보면, 번역가와 작가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종의 팀이 되어 협업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번역가 사회적 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번역청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며 『번역청을 설립하라』(박상익 2018)라는 제목의 책과 청원까지 등장하였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시화되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¹²⁾ 국내에도 산발적으로 설립된 조합 및 협회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¹³⁾ 좀 더 활동 범주를 넓혀 번역가 지위 향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적극적인 실천 방안을 구상해볼 때이다.

12) “번역청은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본다. 혜택이 현장에서 일하는 번역가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관료제의 한계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을 투입하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올해 돈을 투입하면 올해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기획재정부에 다음 해 예산을 요구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 방식은 번역가 전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김도양 2018).

13) 예를 들어, 2007년 설립된 한국통번역사협회(<http://www.i-kati.or.kr/>) 및 2013년 통번역사 50명이 모여 설립한 번역협동조합(<https://www.transcoop.net/>) 등이 있다.

5. 결론

국내와 영미권 문학 번역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번역가 정체성, 오역, 경제적 보상, 출판사 및 작가와 역학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해보았다.

국내 번역가의 번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번역가의 비가시성을 옹호하는 부류와 번역가는 번역 과정에 어쩔 수 없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 인식하는 부류로 양분된다. 반면 해외 번역가는 번역을 또 하나의 창조적 쓰기 행위로 인식하고, 번역가의 창의성과 다시 쓰기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오역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오역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논란이 불거지지만, 오역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국내 번역가들은 언급한다. 또한 번역가들은 오역이 발생할까 긴장하고 조심하는 모습도 보인다. 반면 해외 번역가들은 오역을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하며 중대한 이슈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오역도 번역문학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번역가의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국내/영미권 번역가들이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다. 번역작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번역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다. 그렇지만 해외의 경우 번역료 외에 번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장학금 등이 좀 더 다양하게 제공되어 국내 문학 번역가들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¹⁴⁾

번역가와 작가와의 관계를 보면, 국내 문학 번역가들은 작가와 다소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이지만, 해외 문학 번역가들은 번역하면서 작가와 매우 활발하게 소통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작가와의 긴밀한 관계가 기반이 되어 번역가 사회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 #NameTheTranslator 캠페인도 작가협회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14) 심지어 캐나다의 경우는 문학 번역가들이 작가보다 더 많은 펀딩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캐나다 예술 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와 계약을 체결한 번역가는 번역 시 한 단어당 18센트를 지원받는다(Antonova 2019: 108).

번역가와 출판사의 관계는 국내의 경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출판사에서 먼저 번역을 의뢰하면 번역가는 작업을 시작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해외 문학 번역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번역하고자 하는 작품 및 작가를 발굴하고 출판사를 돌아다니며 소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영미권에서는 번역 서적만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도 등장하며 번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¹⁵⁾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국내 문학 번역가들은 협업 체계 구축, 번역단가 지원, 번역 보험, 번역 전문 매체 설립 등을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영미권 문학 번역가들은 이미 구축된 번역가 협회를 활용하라는 언급과 더불어 번역과 번역가에 대해 공식적/명시적으로 인정하라는 주장과 지원금 제공 등을 제시한다.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영미권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도 다양하나 곳에서 제공되고, 작가와 연합하여 번역가 위상 높이기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또한 번역가 간의 협업 및 번역가 협회 활동도 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번역가의 사회적 가시성이 커지면 경제적 보상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¹⁶⁾ 해외 사례 및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번역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을 구상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국내 문학 번역가와 영미권 문학 번역가의 인식 비교·분석을 통해 문학 번역가의 정체성 및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문학 번역가들은 오랜 기간 번역을 해 온 번역가들이기 때문에 번역 경력 이 그리 길지 않은 번역가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문학 번

15) 미국에는 번역 전문 출판사가 많다. 번역 예술 센터(Center for the Art of Translation), 트랜짓(Transit), 딥벨럼(Deep Vellum), 아키텔라고(Archipelago), 뉴디렉션(New Directions) 등이다(Sasseen 2020).

16) 번역가의 가시성이 향상되면 초보 번역가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어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 숙련된 번역가 또한 독자들에게 가시성이 높아지면 경제적 보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Liu 2013: 42-43). 인세로 번역료를 받는 경우 번역가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책 판매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경제적 보상 강화로 이어진다.

역가 외에 실용 번역가, 영상 번역가, 뮤지컬 번역가, 게임 번역가 등이 처한 상황은 또 다를 것이다. 문학 번역 외에 다른 분야 번역가의 인식 및 상황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점차 확대하여 번역가의 인식, 상황, 처우, 지위 등에 대해 좀 더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14) 「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을 중심으로 본 역자후기의 내용과 기능」, 『번역학연구』 15(3): 33-81.
- 김영신 (2012) 「역자후기를 통해 본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 연구」, 『번역학연구』 13(4): 7-27.
- 박상익 (2018) 『번역청을 설립하라 (한 인문학자의 역사적 알리바이)』, 파주: 유유.
- 유한내 (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정영목 譯 <로드>의 후텍스트 분석」, 『통번역학연구』 17(4): 101-119.
- 이영훈 (2021) 「번역사회학 개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번역·언어·기술』 2: 45-69.
- 임진 (2020) 「어느 실용 번역가의 아비투스 연구: 바깥텍스트와 번역결과물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1): 167-199.
- 임진 (2021) 「나는 왜 번역하는가?」, 『문화와 융합』 43(6): 659-679.
- 전현주 (2009) 「역자의 (불)가시성-역자후기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11-229.
- Antonova, Anna (2019) ‘Translating in Canada: An Interview with Literary Translator and Translation Scholar Dr. Luise von Flotow’, *Transcultural*, 11(1): 104-111.
- Ch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2: 13-22.
- Dam, Helle V. and Karen Korning Zethsen (2008) ‘Translator Status: A Study of Danish Company Translators’, *The Translator* 14(1): 71-96.

- Genette, Gérard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Lewin, J. 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raly, Donald C. (2003) 'From Instruction to Collaborative Construction', in Brian James Baer & Geoffrey S. Koby (eds) *Beyond the Ivory Tower. Rethinking Translation Pedagog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28.
- Liu, Fung-Ming Christy (2013) 'Revisiting the Translator's Visibility: Does Visibility Bring Rewards?', *Meta* 58(1): 25-57.
- Töttösy, Beatrice (2016) 'Interview with Contemporary Armenian Writer and Translator Diana Hambarzumyan', *LEA-Lingue e letteratura d'Oriente e d'Occidente* 5: 229-235.

<인터넷 자료>

- 김도양 (2018) 「김택규 번역가 “오역 논란, 생산적 논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 『투데이신문』, 2021년 10월 15일 검색.
Available at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10>
- 김윤주 (2020) 「김현우 번역가 “존 버거, 한없이 다정한 세계”」, 『채널예스』, 2021년 10월 15일 검색.
Available at <http://ch.yes24.com/Article/View/41354>
- 정의정 (2017) 「번역가 양윤옥 “히가시노 게이코의 문체는 번역자에게 고마운 텍스트”」, 『채널예스』, 2021년 10월 15일 검색.
Available at <http://ch.yes24.com/Article/View/33903>
- 채널예스 (2016) 「번역가 권상미가 말하는 ‘주노 디아스’ 소설의 매력」, 『채널예스』, 2021년 10월 15일 검색.
Available at <http://ch.yes24.com/Article/View/30484>
- Anderson, Porter (2021) 'In London, a Call for Publishers to 'Name Translators on the Cover'', *Publishing Perspectives*, Available at <https://publishingperspectives.com/2021/09/international-translation-day-calling-for-translators-on-the-cover/>
- Bassnett, Susan (2012) 'The Translator as Cross-Cultural Mediator', *The Oxfor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vailable at http://116.206.63.139:8080/xmlui/bitstream/handle/123456789/1291/%5BKirsten_Malmkj%C3%A6r%2C_Kevin_Windle%5D_The_Oxford_Hand.pdf?sequence=1&isAllowed=y

Sasseen, Rhian (2020) 'Even the Simplest Words Have Secrets: An Interview With Jennifer Croft', *The Paris Review*, Available at <https://www.theparisreview.org/blog/2020/08/31/even-the-simplest-words-have-secrets-an-interview-with-jennifer-croft/>

[첨부] 국내/영미권 문학 번역가 인터뷰 사이트

번역가	인터뷰 사이트 / 인터뷰 날짜
1. 공경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78489 / 2016.02.24.
2. 김난주	https://blog.naver.com/knredcross/100138207769 / 2011.09.17.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599853&memberNo=38139099 / 2017.07.12.
3. 김남주	http://news.kyobobook.co.kr/people/writerView.ink?sntn_id=7324 / 2013.07.17.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70&fbclid=IwAR162BoQkertl57HBmz5NDlfgij9f2i2KtMBDPSmWbMY7BL3VpYIwbrEaXg / 2017.10.27. http://ch.yes24.com/Article/View/36280 / 2018.06.22.
4. 김석희	http://ch.yes24.com/Article/View/31044 / 2016.06.24
5. 김택규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10 / 2018.07.12
6. 김현우	http://ch.yes24.com/Article/View/41354 / 2020.03.20.
7. 박산호	http://ch.yes24.com/Article/View/36847 / 2018.08.27
8. 박종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448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020.04.25.
9. 박현주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69189 / 2014.06.11.
10. 양윤옥	http://ch.yes24.com/Article/View/33903 / 2017.07.21.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45 / 2017.10.30.
11. 이세욱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69189 / 2014.06.11.
12. 이재형	https://blog.naver.com/ansdbfla1512/220622465806 / 2016.02.03.
13. 조영학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23100015 / 2018.09.03.
14. 정영목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2/02/134602/ / 2012.02.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301803331605 / 2018.05.30.

번역가	인터뷰 사이트 / 인터뷰 날짜
1. Ana Jelnicar	https://solsticelitimag.org/content/interview-with-writer-and-translator-ana-jelnicar/ / 2017.
2. Anthony Shugaar	https://www.newitalianbooks.it/interview-with-antony-shugaar-writer-and-translator/

3. David Warriner	https://quebecreads.medium.com/interview-with-literary-translator-david-warriner-cd76998bb19 / 2020.11.24.
4. Deborah Smith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615001082 / 2016.06.16.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what-we-talk-about-when-we-talk-about-translation/ / 2018.01.11.
5. Edith Grossman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multilingual-wordsmiths-part-3-edith-grossman-reading-spanish-pitfalls-literatism/ / 2016.05.26.
6. Howard Goldblatt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translating-mo-yan-an-interview-with-howard-goldblatt/ / 2013.05.26.
7. Jennifer Croft	https://booksandbao.com/jennifer-croft-interview-translation/ / 2019.08.03. https://www.theparisreview.org/blog/2020/08/31/even-the-simplest-words-have-secrets-an-interview-with-jennifer-croft/ / 2020.08.31.
8. John Pluecker	https://blogs.lse.ac.uk/lseviewofbooks/2018/12/14/interview-qa-with-translator-john-pluecker/ / 2018.12.14.
9. Jonathan Wright	https://thecommapressblog.wordpress.com/2020/11/26/an-interview-with-translator-jonathan-wright/ / 2020.11.26.
10. Katherine Gregor	https://massardo.com/blog/interview-with-katherine-gregor-literary-translator/ / 2021.
11. Natasha Lehrer	https://lucywritersplatform.com/2020/09/10/interview-with-award-winning-translator-and-writer-natasha-lehrer-translation-is-not-a-word-for-word-transposition-its-another-iteration-of-the-book/ / 2020.09.10.
12. Natasha Wimmer	https://www.sampsoniaway.org/blog/2013/01/17/translating-bolano-an-interview-with-natasha-wimmer/ / 2013.01.17. https://www.katedeimling.com/2019/02/15/3-observations-from-interview-with-literary-translator-natasha-wimmer/ / 2019.02.15.
13. Ruth Ahmedzai Kemp	https://thecommapressblog.wordpress.com/2019/01/07/interview-with-literary-translator-ruth-ahmedzai-kemp/ / 2019.01.07.
14. Stefania Heim	https://pen.org/pen-ten-interview-stefania-heim/ / 2019.07.25.

[Abstract]

**Cross-Cultural Study on Literary Translators' Perce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of Translator-Focusing on
Korean/Anglophone Translator Interview Analysis**

Mah, Seung-Hye · Kim, Soon-Young
(Dongguk University, Seoul)

Translators, not just translation process or outcomes, deserve more scholarly attention. This study investigates literary translators' perce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of translator. Specifically, literary translators' perception on translator identity, errors in translation, economic status, relations with authors/publishers, and societal support needed for translator status enhancement is qualitatively investigated based on interviews of 28 Korean and Anglophone translators. This cross-cultural study reveals that both Korean and Anglophone translators share the same view that the economic reward for their work is not enough. However, their perception on and attitude toward errors in translation are quite different. Korean literary translators and the society as a whole are very sensitive to translation errors, whereas Anglophone literary translators and the society are relatively generous to errors, even accepting the errors as a part of translation literature. Anglophone translators maintain more close relations with authors and publishers, which lays the groundwork for the #NameTheTranslator campaign. Such a movement can spill over to other culture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ing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translators.

▶ Key Words: sociology of translator, translator interview, translator perception, translator visibility, cross-cultural study

▶ 주제어: 번역가 사회학, 번역가 인터뷰, 번역가 인식, 번역가 가시성, 문화간 연구

마승혜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조교수

shm213@gmail.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교육,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김순영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교수

imksy927@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영상번역, 트랜스크리에이션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2일